

# 동북아 이해당사국에 경종이 울렸다

美-中 관계 악화되면 한반도 문제에도 부정적,  
주변국들은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 해야

Bates Gill

미국의 비무장 정찰기 EP-3E機와 중국의 F-8 전투기 간의 충돌사건은 동북아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국들에 요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EP-3E 승무원들의 미국 귀환이라는 가장 긴급한 문제는 곧 해결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서로간의 관계를 재고하는 데 앞으로 수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위기의 동거나 결말이 어떠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 지역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이 차후 중·미 관계와 전반적인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해 제기하는 더 큰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장기적인 국익과 그에 대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데 내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점차 분열상을 빚고 있는 이해 그룹들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국은 외교적인 이익그룹과 군사적인 이익그룹 사이에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현재는 군사적인 이익그룹이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에서 공산당은 갈수록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고 내년이면 '제4세대'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이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은 '피해의식'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감정적인 수사(修辭)를 사용하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내놓으며 사태해결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끌고 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말해 이번 사건은 '고통받는' 중국을 다루는 데서 미국이 앞으로 부닥칠 문제들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취약성과 상처받은 자존심은 중국의 정치·군사 그룹 내에서 강경파와 국수주의자들의 득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對중국 정책에서 일관성을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체로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고 원칙에 입각한 유연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워싱턴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1989년 조지 부시 前 행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맞은 4월 중국에서 위기상황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가 그해 6월 초 천안문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해보라. 당시 행정부 인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현재 다시 정책입안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단지 우연한 일치가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미국 정부·의회 의원들의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의 입에 쓴맛을 남길 것이다. 앞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베이징(北京)의 2008년 올림픽 유치 운동,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그리고 중·미 관계의 많은 다른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미 관계가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향후 1~2년 동안은 새로운 약진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동북아 지역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미 쪼그려온 일·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겨우 몇백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작전을 펴는 EP-3 정찰기 및 다른 對중국 관련 임무들은 미·일 동맹관계와 연계돼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는 미·일 동맹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높여 왔고 중국이 그 동맹관계의 '주목표'라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더구나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지난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당선 이후 별 진전이 없었다. 중·미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대만 관계도 악화되게 마련이다. 또 현 미국 행정부가 이미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한반도가 떠맡을 수 있는 미·중 가교 역할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빛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다. 첫째, 중국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미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욕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주·한국·일본·대만 등 이 지역의 미국 우방과 동맹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이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양측 모두에게 설득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중국과의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만 중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머잖아 진정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이 지역의 이해당사국들에 커다란 경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필자는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센터 소장)